

##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sup>1</sup>

■ 안명준

- 합동신학대학원(M.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 남아공 Univeristy of Pretoria (Ph.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오늘날 현대 문명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수보다는 소수에, 정통보다는 비정통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sup>2</sup>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sup>3</sup> 21세기의 문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의 해방과 그리고 성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싫든 좋든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신자

---

<sup>1</sup> 이 논문은 평택대학교 논문집 16호(2002)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2012년 인터넷 검색 조사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했다.

나 비신자라는 구별에서 오는 이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그 대안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범위에 제한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동성애를 2가지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는, 동성애란 남녀 각자의 경향(orientation)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같은 성끼리 성적 흥분을 주고받는 행위(action)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sup>4</sup>

그러나 필자는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용어를 지속적인 능동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행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한다.

먼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동성애와 그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문제점들을 성경을 통하여 비판하고, 동성애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세속 문화에 대한 신학의 영향, 성의 신학, 동성애와 창조 세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본 대안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제안들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신학의 정립과 교육을 언급하고, 전도를 위한 인권의 존중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 2.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동성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의 혁명 시대이다.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성과 관련되어 매순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인 사람에서 성직자까지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성의 위력 앞에 연약한 인간의 죄악성을 세상 곳곳에서 보고 있다. 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전 세계는 지금 금지된 사랑 즉 동성애(homosexuality)에 대한 문제로 뜨거운 담론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동성애에

<sup>2</sup> Anthony C. Thiselton,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On Meaning, Manipulation and Promise* (Edinburgh: T&T Clark, 1995), 11. 여기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자아의 능력이 자신의 운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무지한 확신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Postmodernism implies a shattering of innocent confidence in the capacity of the self to control its own destiny)라고 정의를 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계획의 전체적인 전략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그리고 이성적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고, 분노, 소외, 불안,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과 같은 감정적 부수물들을 수반한다고 한다. 맥그래스(McGrath)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절대적인 것들, 고정된 확실성들 그리고 건설적인 것들을 갖지 않고 다원주의의 다양성을 좋아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보며, 또 인간 사고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들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본다. 참조.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4), 102.

<sup>3</sup>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참고로, 안명준, “21세기를 위한 해석자: 칼빈의 해석학에 있어서 성령과 해석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신학〉, 통권 2권 (1999): 164-210. 이 논문을 인터넷으로 보기 <http://theologia.co.kr>.

<sup>4</sup> C. G. 스크러, 《성경과 현대 성윤리》(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126.

<sup>5</sup> 2012년 8월 14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KBS의 뉴스(<http://news.kbs.co.kr>)에서 동성애 검색어 관련 보도는 1,985건이다. MBC의 뉴스 경우 동성애 관련 뉴스는 1,041건이 검색되었다. SBS의 경우 692건이 검색되었다. KBS가 약 10년 동안 연 평균 동성애 뉴스를 약 200회 했다고 볼 수 있다. Naver.com 검색에서는 과거 2002년 55개의 동성애 사이트에서 8월 14일 218개로 등록되어 있었다. 네이버에서 과거 2002년에 문서(text)로는 동성애가 31,567건이며, 신학 관련 문서 검색은 106,478건이었다. 그런데 8월 14일 등록 사이트가 218개, 그리고 문서가 902,522건으로 검색되었다. 신학 문서는 1,793,797건으로 검색되었다. 한국 구글 검색에 따르면, 동성애 문서가 약 4,680,000건이며, 신학 문서가 약 12,600,000 이다. 동성애 관련 문서들이 10년 만에 엄청 많이 증가했다. 〈조선일보〉에서 1993년 12월 29일부터 2002년까지 동성애는 572건이었지만, 8월 14일에는 3188건이다. 〈중앙일보〉에서는 2001년 10월 24일부터 2002년까지 동성애는 194건이었지만, 8월 14일 8076건이다. 외국의 유명 검색 회사에서 나타난 신학과 동성애에 대한 웹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2002년 <http://www.yahoo.com>에서는 신학(theology)은 2,000,000건의 웹문서가 있었는데, 2012년 8월 14일에 80,500,000개 있다. 당시 동성애(homosexuality)에 관한 웹

대한 여러 소식은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다.<sup>5</sup>

최근 한국만 보아도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2000년 9월 25일 한 연예인의 커밍아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영향이 서서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에 대한 혼란은 하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까지 마스크를 타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런 모습을 동경하게까지 만들고 있다.<sup>6</sup> 최근 10년 동안 동성애자들의 사이트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트들도 조직적이며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자신들의 견해를 전파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지금 금지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동성애가 문화를 입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며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 포스트모던 사상에 물들여진 대중문화의 활동가들은 이미 적대감 없이 친숙하게 소외되고 변형된 사랑의 이야기를 정상적인 것처럼 크리스천들의 사고에 자리잡게 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 동성애자들로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이다.<sup>7</sup> 심지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동성애자로 나서고 있다. 멜 화이트(Mel White)는 YFC(Youth for Christ)의 지도자, 신학교 교수, 전도 영화 제작자, 대형 교회 목회자였으며, 그는 빌리 그레이엄과 제리 포웰, 제임스 케네디, 그리고 팻 로버트슨의 대필자 등 화려한 경력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문 밖의 낯선자》(*Stranger Outside the Gate*)<sup>8</sup>라는 책을 써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책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훗날 성인이 되기까지 동성애로 몸부림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향을 바꿀 수 없으며 동성애적 지향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영국의 성공회 사제인 베일리(Derrick Sherwin Bailey)는 자신의 책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sup>10</sup>에서, 행동 과학과 관련된 성구들의 재해석으로부터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의 견해에 도전했다.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스 대주교도 그동안 동성애자의 성직자 임명에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대주교 지명 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성에 대한 견해는 신학자의 각자의 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가 현재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다. 외국의 경우 예배가 끝난 후에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부 예배는 일반

문서는 754,000개의 웹 문서가 있었는데, 8월 14일에는 동성애가 약 37,400,000개 있다. Google.com의 검색 결과는 8월 14일 현재 신학이 약 66,500,000개이며, 동성애가 약 29,500,000개가 발견된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총 웹문서에 비해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성애에 관한 웹 문서는 실로 거대한 것이다.

<sup>6</sup> 조하식,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본 성전환자 하리수 문제 연구,” (M. Div. Thesis, 평택대학교, 2002).

<sup>7</sup> <http://kidoktimes.com/inside.html?id=3208>(2002년 자료, 현재 kidoktimes.co.kr로 변경됨).

“시사 주간지 <타임>은 최신회(4월 1일자) 커버스토리에서 1985년 루이지애나에서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자와의 합의 보상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올 들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스턴 글로브> 지가 1월 존 거간 사제(66)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부터이다. 이 신문은 열 살 난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월 10년형을 선고받은 거간 사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130여 명의 소년을 성추행해 왔으며, 이를 알았던 대교구 측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예배이며, 2부 예배는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다. 물론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교회도 탄생하기 시작했다.<sup>11</sup>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이 심하여 그들을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 미국의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학 교수를 선발하는데, 자격 요건으로 가장 소외된 자를 정하였는데 흑인이며 여성이며 레즈비언으로

<sup>8</sup> Mel White, *Stranger at the Gat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Mel White 홈페이지, <http://www.melwhite.org/>.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멜 화이트의 삶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For thirty-five years, The Rev. Dr. Mel White struggled to 'overcome' his homosexual orientation through prayer, fasting, various aversive therapies, exorcism, and even electric shock. A victim of misinformation and biblical misuse, Mel thought his same-sex orientation was a sickness and a sin. During those 'closet years' Mel served the Christian church as a prize-winning television producer and filmmaker, a best-selling author, a pastor, seminary professor, and ghost writer to religious leaders including Billy Graham, Pat Robertson, and Jerry Falwell. After a time of terrible depression, Mel finally reconciled his Christian faith and his sexual orientation. In his autobiography, *Stranger at the Gate: To Be Gay And Christian In America*, Mel announced, 'I'm gay. I'm proud. And God loves me without reservation.' For the past six years, Mel and his partner, Gary Nixon, have traveled across the country as the UFMCC Minister of Justice seeking equality and understanding for God's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children. In 1997, Mel and Gary received the ACLU's National Civil Liberties Award in Atlanta, Georgia, for their efforts at applying the 'soul force' principles of Gandhi and King to the struggle for justice for sexual minorities. Consider joining their interfaith, ecumenical Network of Soulfence Friends by visiting Mel and Gary's new Soulfence web page.

<sup>9</sup> 잭 볼스윅과 주디스 볼스윅, 《진정한 성》(서울: IVP, 2002), 115-116.

<sup>10</sup> Derrick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55).

<sup>11</sup> <http://www.cathedralofhope.com/>(2002년) 델러스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은 결코 동성애를 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경에 여러 구절들을 왜곡하고 있다.

하였다.

미국 교회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갤럽의 통계에서 볼 수 있다. 1999년 갤럽이 실시한 '동성애가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여론 조사에서 '예'라고 대답한 비율은 50%를 넘어, 지난 1982년의 34%와 큰 변화를 보였다. 또 1997년 바나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46%의 사람들이 '교회는 동성애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2</sup>

동성애자들의 각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페르-크리스티안 포스(52) 노르웨이 재무장관이 스톡홀름에 있는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게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한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맡은 장관이 동성애자로서 공개적인 결혼을 한 것은, 분명히 인류 문명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는 영화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렸다. 동성애 영화로는 1996년 박재호 감독의 〈내일로 흐르는 강〉을 통하여 본격적인 동성애 논의가 마련되었다. 최근 동성애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로는 〈번지 점프를 하다〉(눈엔터테인먼트, 김대승 감독), 〈인사이드〉(태창엔터테인먼트, 유상욱 감독), 〈봉자〉(박철수필름, 박철수 감독) 등이 꼽힌다. 김인식 감독의 〈로드 무비〉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영화로 화제가 되었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점점 호의적으로 증가하며,<sup>14</sup>

<sup>12</sup> 자료 인용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72000000084018&s=308&e=555](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72000000084018&s=308&e=555), 〈국민일보〉, "동성애자 안수 고민하는 미국 교회," 2001. 7. 20.

<sup>13</sup> 동성애를 다룬 외국 영화는 〈아이다호〉, 〈결혼 피로연〉, 〈패왕별희〉, 〈크라잉 게임〉, 〈씨베지 나이트〉, 〈필라델피아〉, 〈M 버터플라이〉가 있다.

<sup>14</sup> 남성의 경우 3-16%, 여성의 경우 1-3% 가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활동이 실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이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이성 간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중 절반은 동성애자와 동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sup>15</sup> 따라서 자유로운 성의 해방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캠퍼스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심지어 미국 군대에서처럼 한국의 군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신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에이즈 경우에 동성간의 성 접촉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DNA 분석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sup>16</sup> 물론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성애자들의 거센 항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는 서로 연관되어 조사되고 있다.

과거는 청소년들이 친구나 선배에게 동성애적 감정이 일어나는 경험으로 끝났지만,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동성애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난 내용을 소개한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성 의식을 조사한 결과, 54.4%가 ‘동성애는 있을 수 있다’고 답해 청소년기 소녀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금기가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중고 여학생들의 동성애 문화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학생들의 동성애 행각은 상당히 대담하다. 오죽하면 서울의 모 여고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것까지 금지시켰을까? 원인은 두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서로 적나라하게 키스하는 장면을 학생 주임교사에게 들켰기 때문으로 교내에서 레즈비언같이 행동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sup>18</sup>

초등학생들도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sup>19</sup> 심지어 학생들의 신앙 훈련이나 성경 캠프에서도 동성애 경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sup>20</sup>

한국 사회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인정되는 그룹들이 있다.<sup>21</sup>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 그룹을 인정하지 않지만 조만간에 이해하는 교회가 나오리라 예측된다.<sup>22</sup>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비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약은 율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사랑을 강조함으

<sup>15</sup> <중앙일보> 2002년 10월 14일, 자료 인용은 [http://service.joins.com/asp/search\\_article.asp?aid=1814497&serv=society&sec=1450](http://service.joins.com/asp/search_article.asp?aid=1814497&serv=society&sec=1450)(2002년).

<sup>16</sup> <http://news.kbs.co.kr/news9/20021017/2002101712.htm>. KBS 9시 뉴스, 2002년 10월 17일.

<sup>17</sup> 2002년 10월 26일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0대 동성애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동성애를 다루었다. 인터넷 재방송 참고 227회 <http://tv.sbs.co.kr/docu/>. 방송의 주 내용 가운데 첫 부분을 소개하면, “지난 8월, 대구의 한 여중생이 연인의 결별 선언에 절망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 19층에서 발견된 그 학생의 유품에서는 한 사람을 애타게 사랑하는 사연을 담은 편지가 발견됐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남자가 아닌 여고생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무려 15%가 가벼운 신체 접촉 이상의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sup>18</sup> 변영인, [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2002년).

<sup>19</sup> 한철호,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사상>, 2000년 11월호, 81. 한 어떤 초등학생이 여자로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여자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sup>20</sup> 샌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IVP, 1994), 5. 이곳에서 그는 자기가 아는 피터라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캠프에서 동성애를 실험한 후,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통하여 경험하고, 끝내 결혼에서 동성애 경향이 나타나 파혼한 후 현재 게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sup>21</sup> 예를 들면, 창립 13 주년을 맞은 ‘여성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뉴스앤조이> 47호, 2002년 10월 31일.

로써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이런 주장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이 아닌 수정주의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 3.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배경

동성애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기 전에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동성애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1) 동성애에 대한 정의

앞서 간략하게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동성애를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영어로 동성애를 'homosexuality' 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1869년 커르트비니라는 사람이 벤커트라는 익명으로 최초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homosexuality' 라는 개념을 남녀 동성애 모두에게 적용시켰지만, 그것을 정의하면서 발기 실패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sup>24</sup>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같은 성을 가진 자의 지속적인 성행위를 동성애로 말한다. 이 정의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이성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성과 여성 간의 성행위로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으로 말한다.

동성애자 중에서 남성들의 동성애는 '우라니즘'(Uranism)이라고도 부르고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라고 부른다. 남성 동성애자들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떠맡는 상대를 속어로 'fairy' (요정이라는 의미)라고 하며, 또한 여성적인 면을 지닌 남성 동성애자를 'fag' 또는 'faggot' 라고 부른다.<sup>25</sup> 또한 동성애자들의 권리 운동에 관한 용어는 'homophil' 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동성애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sup>26</sup> 게이란 용어는 호모란 용어와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게이라고 지칭했으나,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여성의 경우 레즈비언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어원은 동성애에 빠졌던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Sappho, B.C. 600년경)의 이름을 따서 사피즘(sapphism), 또는 사포의 출생지 레즈보스 섬의 이름을 따서 레즈비언 사랑(lesbian love)이라고 한다.

#### 2)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는 고대시대부터 종교와 정치에 관련하여 변형된 성행위로 나타났다.<sup>27</sup> 특히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은 구약에 나타난 동성

<sup>22</sup>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fgtv.com>)에는 2012년 6월 1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 이란 이름의 카페가 개설됐다가 며칠 만에 폐쇄되었다.

<sup>23</sup> 광분이, 동성애에 대한 성의 입장, <http://spring.peacenet.or.kr/~maria/kcwn3.htm>(2002년).

<sup>24</sup>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9/011.html>(2002년).

<sup>25</sup> 여장 남자를 '드랙퀸'(drag queen)이라고 하며, 남장 여자를 '드랙킹'(drag king)이라고 칭한다.

<sup>26</sup> 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하여 참고로 소개하면 조하식,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본 성 전환자 하리수 문제 연구," 34이다.

<sup>27</sup> 고대에 많은 문헌과 시 그리고 선사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동성애는 많이 나타난다. John Jefferson David,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lipsburg: P&R Publishing, 1993), 96.

애의 이해에 올바른 도움을 준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인에 대한 사랑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미소년들과 사랑을 함으로써 정신적 상승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로마의 첫 열다섯 명의 황제들 중에서 열네 명이 동성애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sup>28</sup>

스칸조니와 몰렌콜트에 의하면, 역사상 유명하고 세상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 가운데 동성애적 지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헬라이어 신약성경의 편집자인 에라스무스(사제의 아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1세 왕, 미켈란젤로, 프란시스 베이컨, 여왕 메리 2세,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 차이코프스키, 헨리 제임스이다.<sup>29</sup> 히틀러는 동성애 행위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부끄럽게 하는 열등한 행위라고 보고, 유대인처럼 가스실에서 죽었다. 동성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었다.

### 3) 동성애의 원인

학자들은 동성애의 분명한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주장들이 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이 주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것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인간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동성애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 해서 원죄를 당연한 우리의 정상적인 규

<sup>28</sup> 문시영, 《기독교 윤리 이야기》(서울: 한들, 1996), 141.

<sup>29</sup> 잭 볼스워크 주디스 볼스워크, 《진정한 성》, 87.

범의 요소로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설령, 동성애의 요소가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해도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영향일까?<sup>30</sup> 이에 대한 논쟁도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 즉 동성애자들의 유전자 패턴과 배열이 이성애자들의 것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유발하거나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뇌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또는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서서히 성장하면서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하나의 견해가 있다.<sup>31</sup>

또 다른 동성애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동성애의 원인이 가족 관계에서 학습된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족 및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을 익혀 가는 과정에서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 경우인 것이다.

이 글은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다만 동성애는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점은 설득력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 4. 동성애자들의 주장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자들까지 많이 있다는 점이다.

<sup>30</sup> 변영인, [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2002년).

<sup>31</sup> 한철호,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82.

동성애에 대하여 동성애자들의 강한 주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이 자신의 이성애 성향에 대해 원인을 묻지 않듯이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도 원인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5년에 발표된 동성애자 인권 선언문에는,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을 이 사회의 광기와 폭력이라고 선언한다. 동성애란 잘못된 선천적인 자질도 아니고, 나이가 성장과 교육의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는 더더욱 아니라고 한다. 또 동성애를 해부하고 규명하려는 그 어떤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많은 이들의 삶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광기와 폭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란 단지 이성애에 비해 소수일 뿐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성애와 함께 있어 왔던 성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최근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김효성 목사에게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지지하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1979년도의 한 책에서, (연합감리교회 소속) 남부 감리교대학교의 빅터 폴 퍼니시(Victor Paul Furnish)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정말 동성애를 정죄했는지 의문(疑問)하였다고 한다(Christian News, 1997년 10월 27일, 5쪽).

1982년 연합감리교회에서 출판된 ‘인간의 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동성애적인 남자와 여자들이 교회 목회나 지도적 직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보고서는 주장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동성애적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완

전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생활을 하고 상호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Christian News, 1997년 10월 27일, 5쪽).

하버드 대학교 기념교회의 동성애 목사 피터 고움즈(Peter Gomes)는 말하기를, “그 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Huntsville Times, 1997년 7월 17일; Calvary Contender, 1997년 8월 1일). 또한 1997년 10월 3일 《유에스에이 위켄드》(USA Weekend)와의 대담에서 고움즈는 레위기에서의 동성애의 금지가 동성연애자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그것이 의식적(儀式的)으로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로마서 1장 27절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바울의 비평이 ‘본성적으로’ 동성애자인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고 이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모두 그것의 타락한 이방적 표현이었다. 그는 그런 무지 때문에 정죄될 수 없지만, 그의 무지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위한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Christian News, 1997년 11월 10일, 7쪽).

하버드 대학교의 비교 종교 및 인디언학 교수 다이애나 에크(Diana Eck)는 1998년 7월 그의 동료 교수이며 20년간 그의 동성애 파트너인 도로시 어스틴(Dorothy Austin)과 함께 하버드 대학교의 로웰 기숙사의 사감으로서의 임무를 맡았다(Huntsville Times, 1998년 4월 26일). 에크는 1988년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이방 종교들과의 대화 위원장이었다(Christian Beacon, 1988년 12월 1일, Calvary Contender, 1998년 6월 1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the pro-gay theologians)과 수정주의자들(the revisionists)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가이슬러는 이들의 주장을 잘 설명하고 비판하였는데,<sup>33</sup>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up>32</sup> 김효성, 자료 인용은 <http://www.oldfaith.net/st/st.htm>(2002년).

<sup>33</sup> 노르먼 L. 가이슬러, 《기독교 윤리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36-340.



첫 번째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원인이었는가에 대하여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이 보여준 집단 강간이 그 원인이지 동성애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이기심으로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에스겔 16장 49절<sup>34</sup>에 근거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과 이웃을 돌보지 않음으로 멸망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25절에서 ‘야다’(yada)를 성행위로 보지 않는다.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 13절-20장 38절<sup>35</sup>의 설명에 대해 베일리(D. S. Bailey)는 하나님이 벌하신 죄는 성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호의를 갚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헬무트 틸리케와 같은 학자는 구약에서 남색에 관한 구절들이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는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단순히 인용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이런 그의 주장은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뒤에서 시도된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18장 22절의 구약 율법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레위기는 돼지고기와 새우를 먹는 관습을 비난하였지만, 이런 제사법은 이미 철폐되어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금하는 율법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동성애적인 매춘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sup>37</sup>

세 번째로, 바울의 견해는 개인적인 것으로 주께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본문은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질서에 어긋나 동성애 행위에 빠지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동성애자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성애자들은 이성애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성애자들이 이성애를 넘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왜곡 이외에도 동성애 주장자들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시킨다. 첫 번째로, 동성애는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므로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말라고 한다. 두 번째로, 성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말하라고 하면서, 법적 보호를 주장한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경우와 죄로 보는 경우는 매우 차이점이 나타난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반 오웬(Van Owen), 오토 피퍼(Otto Piper), 월펀덴(Wolfenden)과 같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동성애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에서 훌륭한 능력을 지닌 구성원으로 평가한다.<sup>38</sup>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테오도르 보베트는 동성애를 도덕이나 죄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번째로, 자연 과학자들은 포유동물도 동성애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주

<sup>34</sup>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겔 16:49).

<sup>35</sup>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sup>36</sup> 헬무트 틸리케, 《기독교 성윤리》(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289.

<sup>37</sup> 쉐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8.

<sup>38</sup> 헬무트 틸리케, 《기독교 성윤리》, 282-283.

<sup>39</sup>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 세계협회의 지도자 그윈 깃보드(Gwynne Guidbord) 박사는 최근의 미국 교회협의회총회에서 연사로써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회집된 교회협의회 대표들 중 최소한 절반은 서서 그 여자에게 갈채를 보내었다(National Liberty Journal, 1999년 2월호). 그 여자는 실제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젊은이들을 매춘, 마약, 알코올 남용에 빠지도록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자료 인용 김효성, <http://www.oldfaith.net/modernch/4p6.htm> (2002년).

장한다. 다섯 번째로, 동성애를 막는 것이 젊은이를 매춘, 마약, 알코올로 빠지게 한다고 주장한다.<sup>39</sup> 마지막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동성애를 받아 주는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 5.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먼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오늘날도 권위를 갖는 우리의 신학과 윤리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그 자체는 현재의 모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100%로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답을 찾는 일은 해석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성경신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답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서 성경은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비판

초대 교회의 속사도였던 폴리갑(Polycarp)과 아테네에 살았던 아리스티데스(Aristides), 타티안(Tatian), 아테네의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of

Athens),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of Antioch), 클레멘트(Clement), 오리겐(Origen),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크리소스톰(Chrysostom)<sup>40</sup> 등은 동성애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거스틴(Augustine)과 토마스 아퀴나스(Aquinas)는 동성애를 거절하였는데, 그들은 비생식적인 성행위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정죄하였다.<sup>41</sup>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하여 동성애는 거부 당하여 왔다.

앞서서 밝힌 동성애 지지자들의 견해들을 가이슬러의 설명과 더불어서 몇 가지로 비판할 수 있다.<sup>42</sup>

첫 번째로,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관계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후 관계 문맥에서 성관계이다. 특히 ‘야다’(yadha)의 단어는 성관계와 관련하여 자주 쓰였다. 물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반드시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죄악들과 포함하여 동성애가 원인 중의 하나였다. 특히 유다서는 그곳의 영원한 불의 형벌의 원인으로 성적 부도덕(간음)과 다른 색(perverison, 헬, 사르코스 헤테라스)을 말하고 있다.<sup>43</sup>

두 번째로, 구약 레위기의 의식법은 신약에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철폐를 못한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성경을 기록하게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동

<sup>40</sup> David D. Bundy, “The Church Fathers and Homosexuality,” *What You Should Know about Homosexuality*, ed., Charles W. Keysor (Grand Rapids: Zondervan, 1980), 117-143.

<sup>41</sup>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8. (London: Routledge, 1988).

<sup>42</sup> 참고로 Responding to Pro-Gay Theology by Joe Dallas. <http://www.stonewall-revisited.com/issues/theo.html>.

<sup>43</sup>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성애에 대해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창조의 본성과 모순된다. 로마서 1장 27 절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sup>44</sup> 하나님은 동성이 아닌 이성을 사랑 하라고 하신다(창 2:24; 고전 6:15-17). 동성애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경고한다(고전 6:9).<sup>45</sup>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은<sup>46</sup> 부분적으로 십계명의 업데이트인데, 7계명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는 남색하는 자(sodomoy)까지 포함하여 바울은 설명한다.<sup>47</sup> 그렇다면 십계명은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요구로서,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십계명의 7계명과 관련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교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범주 안에서는 동성애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무엇인가? 동성의 하나 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이외의 다른 증거에 대한 것들도 반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성애를 자유로운 성적 표현으로 주장하는

<sup>44</sup>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 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7).

<sup>45</sup>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나”(고전 6:9).

<sup>46</sup>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딤후 1:10).

<sup>47</sup> “Homosexuality,”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Part 2 (Leicester: IVP, 1994).

견해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단순히 사생활로 보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사회가 단순한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아직까지 동성애 성향이 유전한다는 확고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다만 동성애는 학습 받은 행동이라는 주장이 더 강하다. 설령 그런 경향이 유전되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네 번째로, 포유동물도 동성애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볼 수 없다. 대부분 동물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며, 습관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동물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도 않다. 그런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의 규범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매춘, 마약, 알코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학적, 범죄학적, 통계학적, 그리고 윤리학적인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은 올바르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들의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 어떤 사회도 동성애를 이성 간의 사랑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다. 어떤 사회도 동성애를 통해 유지될 수 없다.<sup>48</sup>

성행위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범주 안에서는 동성애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경

<sup>48</sup> 소카리데스(Socarides)는 “Homosexuality cannot make a society, nor keep one going for very long” 라고 말한다. 자료 인용 <http://www.dtl.org/ethics/subject/homosexuality.htm>(2002년).

이 동성애를 주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성의 한 몸 이루기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든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가 동성애를 죄로 보고 있다.<sup>49</sup>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성경 해석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했던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생식과 관련하여 결혼 제도에 맞지 않는다.

## 2) 동성애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인가? 물론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다.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의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아담의 의지가 죄로 물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의 우리는 타락한 부패한 인간으로 인간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가 문제이다. 인간의 자유는 무한정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그 말씀 안에서 자유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지나친 것이다.<sup>50</sup>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아담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말에서 재판하실 것이다.

## 3) 세속 문화에 대한 변혁적 신학

아퀴나스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동성애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며, 출산과 관련된 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말한다. 따라서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 크리스천도 반대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를 병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인 악으로 보아야 한다. 바울이 살던 당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정죄받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순리와 역리라는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반대했던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준다.<sup>51</sup>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었다면 당연히 죄악으로 선언해야 한다. 기독교는 세속의 문화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사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과 관용을 통하여 스스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파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대한 사건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up>49</sup> 칼빈(Calvin)은 동성애를 자연의 모든 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증스런 것으로 본다. Comm. on Rom. 1:26(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79. 로마의 클레멘트, 아리스티데스, 타티안, 아테나고라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은 레즈비언을 비판한다. David W. Bercot, ed., *A Dictionary of Early Christian Beliefs* (Peabody: Hendrickson, 1998), 347.

<sup>50</sup> Socarides, <http://www.dtl.org/ethics/subject/homosexuality.htm>(2002년).

<sup>51</sup>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롬 1:26).

동성애 문제는 노예 해방이나 여성 안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데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몇 개의 성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동성애를 문화적인 산물로 혹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의 과잉 탄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죄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위반하면 죄악이다.

#### 4) 성의 신학

우리는 인간을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시켜서 성을 이해해야 한다. 성은 거룩한 것이며, 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신학적 접근에서 볼 때 성행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경은 성행위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성의 결합이다. 다른 성이 서로 합하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 완성하는 행위이다. 다른 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행위는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성경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닐 경우 남성과 남성의 경우에 성행위는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꼭 자연적인 질서의 성행위만이 참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만족을 위한 방법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형태로서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런 육체적 접촉에 의한 행위를 바른 성행위로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과 결혼을 말할 때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연합을 밝히고 있다. 같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결코 없다. 그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성행위는 결혼의 범위에서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다. 혼외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잘못된 행위로 되었다.

성 도덕의 핵심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연합을 고안하셨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완전한 성적 친밀감인 성적 결합을 사용하신다(고전 6:16).<sup>52</sup> 앤드류 그릴리(Andrew Greeley)가 쓴 “신실한 매력”(Faithful Attraction)에 따르면, 결혼 전에 성관계 경험 많을수록 결혼 후 외도를 더 잘하고, 결혼을 통한 최상의 성관계를 누리기가 더욱 힘들며, 결혼에 대해 만족도, 행복하기도 더 힘들다고 주장이다.<sup>53</sup>

#### 5) 동성애와 창조 세계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세계가 움직인다면 창조 세계에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의 유지와 보존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문화적 사명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심으로 남게 된다. 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보시기에 좋았으나 타락 후 땅은 엉성귀를 내고, 인간은 자연과 세상에서 땀을 흘려 가며 살게 되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에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분이 오실 날까지 청지기로서 문화적인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해야 한

<sup>52</sup> 샌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15.,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나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고전 6:16).

<sup>53</sup> *Ibid.*, 15.

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인공적인 변형을 통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파괴된 인간을 회복하고 창조 세계에서 왜곡된 문화에 사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바로 동성애는 이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문화 현상이다.

## 6. 신학적 관점에서 본 대안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에 대해 몇 가지 신학적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제는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발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1) 동성애에 대한 바른 신학의 정립과 교육

동성애의 경우 주로 어릴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부모에 의해 학대를 심하게 받은 자들이며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동성애 방지를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의 정체성에 대한 지혜로운 교육이 크리스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동성애가 최악인 것을 지혜롭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sup>54</sup> 잭 볼스워, 주디스 볼스워, 《진정한 성》, 95.

동성애도 역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동성애에서 사랑의 행위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사랑은 무제한적 자유 속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과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이 주로 성을 즐기는 문화로 퇴폐화시킨 점을 비판하면서, 성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신비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청소년 교육이 시급하다. 모방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경적 성 윤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소보다도 후천적,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교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 충동을 승화시키는 데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 2) 전도를 위한 인권의 존중과 사랑의 실천

최근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견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전도와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좀 냉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뉴욕 시에 있는 어떤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크리스천 간부 회원들은 에이즈가 진행되고 있는 게이들과 접촉하기를 꺼

<sup>55</sup> Udo Schuklenk and Tony Riley, "Homosexuality, Societal Attitudes towar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2 (San Diego: Academic Press, ), 601.

리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sup>55</sup> 크리스천들은 동성애 공포증이나 혐오(homophobia)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주요 주제를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경의 진리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지나친 감정적 증오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방법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은<sup>56</sup> 그 기준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그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

<sup>56</sup> 다음의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자료 출처 <http://members.tripod.lycos.co.kr/seinpower/koreamove/donin/dihpropa1.htm> (2002년).

“이 선언문은 한국 동성애자 인권 운동 단체들이 스톤월 항쟁 기념일을 기하여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했던 1995년 6월 26일에 발표된 선언문이다.

####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이 땅의 모든 레즈비언, 게이 벤틀에게, 오늘 1995년 6월 26일 마침내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침묵의 재갈을 풀고, 자신을 비난하고 모멸했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난 26년 전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뉴욕의 스톤월에서 자신들을 거는 폭력에 저항함으로써 마침내 수세기 간 지속되어 온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조롱에 종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역시 이제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에서 활동하여 온 네 곳의 남녀 동성애자 인권 단체는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유형, 무형의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해,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함께 연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첫 동성애 인권 운동의 지평을 열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반문하고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땅의 레즈비언, 게이 벤틀과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자신의 출범을 알리며, 그 첫 각오와 주장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그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우리 시대의 집단적 침묵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듯 이성애라는 성적 지향성만이 유일하고 정상적이며, 이와는 다른 종류의 성적 지향성은 변태이고 도착이며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같은 독자적인 사랑과 성의 제도이며, 이

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사회에나 존재하고 또 그곳에나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다. 더욱이 동성애란 잘못된 선천적인 자질도 아니고, 나이가 성장과 교육의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도 더더욱 아니다. 동성애를 해부하고 규명하려는 그 어떤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 그것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광기와 폭력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나,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동성애자들과 어떻게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모색하는가일 뿐이다. 다음 동성애에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기존의 언론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제시된 동성애자의 삶의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간 국내의 모든 매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 낸 동성애자의 공동체를 패덕과 난행의 공간으로 호도하고 모멸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온갖 비난과 모욕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많은 동성애자들을 금치산자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자기 혐오와 절망으로 몰고 가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물론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공동체에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학교와 직장, 이르는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동성애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동일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관대함과 이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탓에 비롯된 부정적 결과일 뿐이다. 우리 역시 비밀스럽고 상업화된 동성애자 공동체의 문화를 우려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궁지와 용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우리들이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친교와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에게 강요된 은폐와 침묵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동성애를 새로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문제인 것이다. 다음,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가족의 위기, 전례 없는 이혼율의 증대, 결혼 제도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성과 사랑의 제도들, 대중 문화를 범람하고 있는 성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양상을 통해 이미 이성애적 성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주어 왔던 가치와 권위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고, 또한 이성애가 누려 왔던 그 모든 완벽한 보편성 역시 회의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성애의 위기가 보수화되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과 증오로 귀결되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 공포증과 한 짝이 되어 범람하는 동성애 공포증은 바로 불치의 질병을 무기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병리화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 본보기일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성병도, 도덕적 제앙도, 윤리적 정벌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며, 그것은 성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감염의 기회가 열려 있는 질병일 뿐이다. 도리어 에이즈에 부착되어 있는 그 난폭한 의미를 떼어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에 대해 새로이 모색하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모든 문제를 정면에서 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과 비난을 물리치고, 자긍심과 희망을 품은 동성애자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스톤월 항쟁 26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뜻깊게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견뎌야 했던 침묵과 공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궁지와 자유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존재로, 또 아담의 타락으로 순리를 바르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이나 혐오스런 동물로 취급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예수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새로이 이해하는 역사적 시대의 빛장을 열 것이다. 동성애 인권 운동 만세!! 스톤월 항쟁 만세!!

우리의 주장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중지하고, 이들이 가진 성적 지향성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2. 언론 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 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4.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역 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격리하고 규제하여 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5.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1995. 6. 26.

<sup>57</sup> 루이스 스메디스, 《크리스천의 성》(서울: 두란노: 1997), 76.

<sup>58</sup> 미국의 경우 앤디 코미스키(Andy Comisky)는 'the Desert Stream' 과 'Living Waters' 라는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를 실질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돕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stonewallrevisited.com/pages/andy\\_c.html](http://www.stonewallrevisited.com/pages/andy_c.html)(2002년). 그의 사역은 성경적 모델에 근거하여 진리와 은총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이성애적 결혼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에 강조를 둔다. 그리고 예수의 속죄와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Andy Comiskey, *Pursuing Sexual Wholeness: How Jesus Heals the Homosexual* (Lake Mary: Creation House, 1989).

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버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대상임을 잊지 말자. 기독교 공동체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받아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sup>57</sup>

### 3) 동성애자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필요성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라는 배타적 행위는 그들을 전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못 된다.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학적인 검증도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과연 동성애는 유전적인 잘못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옳바르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크리스천 의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크리스천 사회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sup>58</sup>



이런 과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적인 작업이다.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대안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가령, 동성애자들의 치료를 위한 상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들이 동성애를 벗어나서 이성애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가능한 전문기관을 만들 것,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교육시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하고 희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실질적 도움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의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sup>59</sup>

## 7. 결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죄한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준다. 동성애에 대한 동정은 많은 곳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삶의 양식으로, 진화한 문화의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성경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과 예수께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결혼을 통하여 성스럽게,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sup>59</sup>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384891&cp=du>(2012년 8월 15일). 국내에서 동성애 사역 기독교 단체는 홀리라이프와 웰스프링(wellspring.co.kr)이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까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60</sup>

성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아름답고 값진 선물이다. 인간의 소유물도 아니며, 인간의 놀잇감이 결코 아니다. 성은 성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sup>60</sup> 안명준,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조직신학 연구〉, 창간호(1),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2002): 9-31. 이 논문을 인터넷으로 보기 위한 참고는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홈페이지 <http://theologia.co.kr/st>.

##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 이규철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Th.M)
- University of pittsburgh 연수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신학박사 학위취득
- 현 안동성결교회



### 1. 들어가는 말

역사상 ‘우정’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이가 피타고라스(Pythagoras)라면,<sup>1</sup> 신학적 견지에서 우정에 관한 담론을 개진(開陳)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우정에 관한 특별한 책을 저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고백록》을 비롯한 그의 주요 저서 곳곳에 우

<sup>1</sup> 힐쉬베르거(Johannes Hirschberger), 《서양 철학사》(상), 강성위 역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2.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역사상 우정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이다. 피타고라스는 실제의 삶 안에서 그의 사상을 실천했던 철학자였다. 피타고라스의 사상과 가치를 뒤따랐던 피타고라스학파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정에의 이상이였다.

정에 관한 그의 통찰을 충충하게 새겨 두었다.

오페라(John J. O’ Meara)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기질은 열정적이었으며 예민한 감수성과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다. 그는 선하고 용기 있으며, 친구들을 쉽게 사귄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 충실성의 덕을 지닌 사람이었다.<sup>2</sup> 이렇듯 어거스틴은 덕이 있어 우정을 참되게 이끌었다.

비검(Thomas J. Biggam)과 몰리겐(Albert T. Mollegen)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생활에 대한 어거스틴의 신학적 통찰은 구약의 율법보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와 같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제시한 덕목들을 우선 취합한다.<sup>3</sup> 비검과 몰리겐이 지적한 바, 개인 생활에 대한 어거스틴의 그러한 경향은 우정에 관한 그의 담론에서도 여전하다. 사실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덕’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분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 등으로 이어지는 고전 철학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 이들 고전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정이 덕이고 덕이 우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제 고전 철학자들이 견지한 우정에 관한 사상을 그의 마음에 부여지는 성령의 은총이라는 조명 아래 여과시켜, 신학적 우정론으로 개진시키고 승화시켰다. 《고백록》의 다음 진술은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sup>4</sup>

<sup>2</sup> John J. O’ Meara, *The Young Augustine: The Growth of St. Augustine’s Mind Up to his Convers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1954), 208.

<sup>3</sup> 토머스 비검, 엘버트 몰리겐, “기독교 윤리”,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442.

<sup>4</sup> Augustine, *Confessions*, 선한용 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4. 4.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이하 *Confessions*는 *Conf.* 라고 표기함.

참다운 우정이란……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매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이 표방한 바와 같이,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우정의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적극적으로 덕으로서의 우정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Caritas*)으로서의 우정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단순히 우정에 대한 고전 철학의 형이상학적 재검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로 승화시킨 신학적 숙고의 틀에서 받아들여진다. 이에 기독교적 우정의 이론을 설정한 최초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펼친 우정에 대한 담론의 정체를 살피고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실체와 신학적 의미를 파악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 제 철학자들의 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한다. 이어 어거스틴의 주요 저서 속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 용례를 파악하고, 그 숙고에 함유된 신학적 암시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철학적 배경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우정론의 기본 바탕인 ‘덕’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와 로마 시대 고전 철학자들의 논점을 간략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 1) 소크라테스(Socrates)

기독교의 옷을 입은 철학자라 일컫는 저스틴 미터(Justine Martyr)에 따

르면, 소크라테스는 실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하다.<sup>5</sup> 니브(J. L. Neve)에 의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소크라테스를 하나의 도덕적 모범으로 삼았다.<sup>6</sup> 그런 만큼 러셀(Bertrand Russell)이 분석한 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덕과 지식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sup>7</sup>

플라톤은 우정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정의를 이렇게 전했다.

우정이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자가 그 정신 혹은 육체에 악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에 선한 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네.<sup>8</sup>

소크라테스의 이 진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우정관은 참된 지식과 참된 선이 밀접히 결부된 도덕성에 기초한다.

김준섭의 분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앎이 있어야 덕을 행한다’ 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덕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앎) 없이 덕은 불가능하다. 지식이 곧 덕이다. 그래서 최고선은 지식(앎)이다. 인간이 최고선, 즉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

<sup>5</sup> Justine Martyr, *The First Apology*, VI,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 *The Ante-Nicene Fathers* Vol. 1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5).

<sup>6</sup> J. L. Neve,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52. 니브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명확한 지식이 선한 행위를 낳게 마련이며, 악한 행위는 무지로 부터 나온다고 가르쳤다. 모든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기에 단지 그것을 깨우쳐 나타나게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간 속에 있는 덕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모든 환경에서 인간을 이끌어주시기도 하신다. 고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적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불멸적인 것이 된다.

<sup>7</sup> 러셀, 《서양 철학사》, 한철하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152.

<sup>8</sup> 플라톤, 《향연, 뤼시스》, 범우문고(55) (서울: 범우사, 1997), 156.

어야 한다. 그 덕은 이른바 ‘사려, 용기, 절제, 정의’인 사추덕(四樞德)이다.<sup>9</sup> 이런 견지에서 우정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선을 지향하는 특성을 띤다.

## 2) 플라톤(Platon)

우정을 주제로 한 플라톤<sup>10</sup>의 작품은 《뤼시스》(*Lysis*)<sup>11</sup>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선하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음은 그 역시 선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루기에 이 우정은 가능하다.<sup>12</sup>

플라톤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루기에 이 우정은 참되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룬다. 그렇지만

덕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우정이 될 수 없다. 플라톤은 이렇게 강조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본의(本意)란, 선인(善人)은 서로 융합되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악인은 서로 융합되지 않고 파자에 서로 정욕으로 대하므로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없으며, 그 밖의 무슨 일에 대해서나 서로 충돌하여 원한을 품고 결국은 일치하여 융화를 도모하는 일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네.<sup>13</sup>

플라톤에 의하면, 우정의 가치는 우정 그 자체에 그 본연의 의미가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우정의 제1원리는 우정이 결코 다른 것을 위해 있지 않고 그것 자체를 위해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귀중하게 되는 것일세……. 우정이란, 요컨대 그 밖의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되겠네. 그렇다면 선은 곧 우정이라 추론할 수 있지 않겠나?<sup>14</sup>

비트삭시스(Vassilis G. Vitsaxis)의 분석에 따르면, 플라톤에게 있어 인간의 영혼은 크게 ‘이성’ (Logistikon), ‘격정적인 의성’ (意性, Thymoides), ‘물욕’ (Epithymitikon)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sup>15</sup> 우정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과 연관하여 주목할 점은, 이성을 발휘하게 하는 덕으로서의 지혜이다.

<sup>9</sup> 김준섭, 《서양 철학사》 (서울: 백목출판사, 1991), 71-72.

<sup>10</sup> 최재희, 《서양윤리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38. 이 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회랍말로 ‘광활(廣闊)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의 총명한 자질에 체격마저 건강했기에 당시의 어떤 체조 교사가 붙인 이름으로서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 (Aristokles)이다.

<sup>11</sup> 서양 지성사에서 ‘우정’,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필리아’ (philia)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인 《뤼시스》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 편’ 또는 ‘초기 대화 편’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덕(德)의 정의(定義)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대화 상대를 논박(elenchos)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한다. 외견상 긍정적인 결과 없이 파장(aporía)으로 막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덕(德)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필로스’ (philos)라는 일상 언어의 애매성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플라톤, *Lysis*, 강철웅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3), 9-10.

<sup>12</sup> Plato, *Lysis, Symposium, Gorgias*, Loeb Classical Library (No. 166), tr. W. R. M. Lamb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5), 41.

<sup>13</sup> 플라톤, 《향연, 뤼시스》, 147.

<sup>14</sup> *Ibid.*, 160.

<sup>15</sup> 비트삭시스, 《플라톤과 우파니샤드》, 박성호, 박성규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89), 122-123.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성(이성)은 영혼의 최상위 부분으로서 반성, 통찰, 추리의 기능을 한다. 격정적 의성은 분노, 혈기, 명예욕, 수치심, 불명예에 대한 혐오감 등을 발한다. 물욕은 영혼의 맨 하위 부분으로서 감각적 욕망(식욕, 성욕)을 지시한다.

이성의 지혜를 좇아서 의성을 발휘케 하는 덕이 용기이다. 용기는 전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성격이 있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물욕을 제어하도록 하는 덕이 절제이다. 여기에도가 전체 영혼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정의의 덕이 있다. 이 정의의 덕은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제 위치의 임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게 함으로써 근본 원리인 이성 아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의 전체적인 조화(내적 평화)를 초래한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의 이른바 사주덕(四主德)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사주덕 중 기본적인 덕은 이성의 힘에 의해 얻어지는 지혜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우정관은 이성론(理性論)적 특성을 보인다.

### 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정(φιλία)은 하나의 덕이 아니라 덕을 내포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실 누구나 벗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재물이나 지위도 남에게 덕을 베풀 기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한 덕은 친애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가장 요긴하게 베풀 것이며, 또 가장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닌가?<sup>16</sup>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정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쾌락(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젊은 세대의 사

람들이 지닐 수 있는 우정이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채우고 빨리 식는다. 단지 쾌락만을 좇아 맺어진 우정이기에 쾌락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정도 끝나기에 희생과 양보가 내포된 지속적인 참된 우정이 될 수 없다.

둘째,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우정이며 서로에게 유용한 이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맺어지는 우정이다. 그래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속 시간 또한 더 길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 계산적인 판단에 의해 성립된 우정이기 때문에 이익의 매력에 사라지면 우정 또한 끝이다. 따라서 이 우정 또한 참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덕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덕을 중심으로 추구하기에 참될 수 있다. 덕은 참된 우정의 원인이다. 선한 인간은 덕의 고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우정은 선한 사람들만이 만들어 갈 수 있다.<sup>17</sup>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인간다운 것은 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은 참된 우정의 원인이다.

완전한 우정은 선하고 덕이 서로 닮은 친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이 선한 사람인 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원하며, 또 그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성이 그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선한 동안 내내 지속한다. 그리고 선은 영속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각자 무조건 친구에게 선하다. 선은 무조건 좋으며, 또 피차가 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들은 또한 즐겁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

<sup>16</sup>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1, 최명관 역 (서울: 도서출판 창, 2004).

<sup>17</sup>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3.

<sup>18</sup> Ibid.

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차 즐겁기 때문이다.<sup>18</sup>

아리스토텔레스의 견지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곧 최고선이다. 이렇게 행복과 덕은 본질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덕 있는 우정이 최고의 우정이다.

#### 4)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어거스틴의 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키케로<sup>19</sup>의 우정론은 그의 《우정에 관하여》(*Laelius de amicitia*)<sup>20</sup>에 집중적으로 개진되어 있다. 우정에 대한 키케로의 담론은 ‘친구는 또 하나의 자기’<sup>21</sup>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

<sup>19</sup> 이규철에 따르면, 키케로는 어거스틴의 회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난 뒤 철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철학은 어거스틴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지혜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였고, 그로 인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했다. 어거스틴의 회심 후 초기 저작에서나 후기 저작에서 키케로의 철학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거스틴의 철학적 정신세계에서 키케로의 비중은 사뭇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키케로는 어거스틴에게 철학적 방법에 의한 진리 추구의 방법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나 《고백록》에 언급된 것처럼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단순한 애지로서 철학이었다. 따라서 키케로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구체적 진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키케로에 의해서 어거스틴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역설적 측면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의 여정에서 키케로의 위치가 가늠된다.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서울: 콤파스출판사, 2001), 179-185.

<sup>20</sup> 키케로가 B.C. 44년에 집필한 《우정에 관하여》는 그의 평생지기인 ‘앗티쿠스’에게 헌정되었다. 이 대화편은 소(小) ‘스키피오’가 죽은 직후인 B.C. 129년, 스키피오와 평생의 친구였던 ‘라일리우스’가 자신의 두 사위 ‘판니우스’와 복점관 ‘스카이블라’와 정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Cicero,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1), 95.

<sup>21</sup> 《니코마코스 윤리학》, IX, 9.

우정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그 점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우정은 미래를 향하여 밝은 빛을 투사하여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네.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네. 친구는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는 가난해도 부자며, 약해도 강하며,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죽어도 살아 있다네. 그만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도 행복해 보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만해 보이는 것이라네.<sup>22</sup>

키케로에 있어 우정(*amicitia*)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든 사물에 관한 선의와 호감을 결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이다.<sup>23</sup> 따라서 우정은 취미나 특성이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생성되며, 이러한 우정 안에서 두 사람의 의지와 사고가 일치하고 서로의 선함과 감정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볼 때, 키케로에 있어 우정은 상호 선한 의지와 의향에 기초한, 본질적으로 이타주의적(*altruistic*) 관계성의 결과이다. 사랑은 그 원인(*the cause*)이고 이타주의적이다.

평등과 도덕적 존중(*moral esteem*)과 타자(他者)를 존중하는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우정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덕스러운 선함보다 좀 더 동정적(공감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타입의 우정은 필연적으로 드물고 제한적이다.<sup>24</sup>

<sup>22</sup> 《우정에 관하여》, 7, 23.

<sup>23</sup> *Ibid.*, 6, 20. 키케로에 따르면, 지혜를 제외하고는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우정이다.

<sup>24</sup> *Ibid.*, 5, 20.

키케로에 따르면, 우정은 인간사에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다.

〈라일리우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정을 그 어떤 인간사보다 우선시하라고 권하는 것 뿐일세. 우정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우정만큼 적절한 것은 없기 때문이네.<sup>25</sup>

우리에게는 생활필수품이라는 물과 불 못지않게 언제나 우정이 필요한 것이라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즐겁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우정이 아니라, 소수의 유명한 친구들에 의해 구현된 그런 종류의 진정한 완전한 우정이라네. 우정은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하고 불운을 나누고 분담함으로써 더 가볍게 해 준다네.<sup>26</sup>

키케로에 의하면, 우정은 지혜로운(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라일리우스〉…… 진정한 우정은 인척 관계보다 더 힘이 있네. 인척 관계는 선의(善意) 없이 존재해도 우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네. 우정에서 선의가 빠지면 우정이라 할 수 없지만, 인척 관계는 선의가 빠져도 존속하니까 말이네. 우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게 해준 것은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맺어준 인연은 무척이나 많음에 비해, 우정이라는 것은 호감에서 그것들을 모두 능가할 뿐더러 선택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단지 두 사람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이네.<sup>27</sup>

키케로의 언설에 따르면, 우정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sup>25</sup> Ibid., 5, 17.

<sup>26</sup> Ibid., 6, 22.

<sup>27</sup> Ibid., 5, 19-20.

그 기원은 오히려 더 오래되고 더 아름답고 더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닐까? 우정이라는 말은 사랑(amor)에서 파생하였는데, 사랑이란 이해관계를 떠나 선의를 맺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정을 가장하여 누군가에게 아부하고 순간의 필요 때문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가끔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진정한 우정에는 가짜와 가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진짜이고 자발적이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우정은 필요보다는 우리의 본성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는 계산보다는 사랑의 감정과 결합된 호감에서 비롯된 것 같네.<sup>28</sup>

키케로에 따르면, 우정에는 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덕 없이 우정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우정은 찬란한 미덕이 빛을 내뿜고 유사한 성질의 영혼이 그것에 애착심을 느낄 때 맺어지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사랑이 싹트기 마련일세.<sup>29</sup>

키케로에 의하면, 덕이 동반된 우정은 행복을 유발한다.

우정이 온갖 방종과 범죄를 향해 문을 열어두었다고 믿는 자들은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네. 자연이 우리에게 우정을 준 것은 악덕의 동반자가 아니라 미덕의 조력자가 되라는 것이었네. 미덕은 혼자서는 최고 목표에 이를 수 없고, 다른 동반자와 결합할 때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 만약 사람들 사이에 그런 협력 관계가 있었거나 있을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의 최고선에 이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최선의 동반자 관계로 간주되어야

<sup>28</sup> Ibid., 8, 26-27.

<sup>29</sup> Ibid., 14, 48.

할 걸세. 내 이르노니, 그런 종류의 우정이야말로 인간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명예, 영광, 마음의 평정, 쾌활함을 내포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네. 행복은 우리의 최고 최선의 목표일세.<sup>30</sup>

키케로에 따르면, 덕이 내재된 이 우정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점이다. 진실이 있어 우정은 참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키케로는 참다운 우정의 지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정의 으뜸가는 규칙’을 제시한다.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게나.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꾸물대지 말게나.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충고해야 하네.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항상 귀담아 들도록 하게나. 자네가 충고할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되 친구로서 솔직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엄하게 충고하게나. 그리고 자네가 엄한 충고를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되 충고받은 대로 행하게나.<sup>3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정에 관한 키케로의 담론은 덕이 동반된 우정이 행복의 절대적 요인이라는 귀착점에 달한다. 그 우정 안에서 본성이 향

<sup>30</sup> Ibid., 22, 83-84.

<sup>31</sup> Ibid., 25, 91-92. 키케로에 따르면, 참된 우정의 태도는 솔직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한 마음으로 친구의 그 충고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아침과 가장은 우정을 파괴한다. 웃음을 짓고 달콤한 말을 하는 친구보다는 적과 같이 쓴 말을 할 수 있는 이가 우정을 더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쓴 말을 하는 이는 진실을 말하는 반면, 달콤한 말을 하는 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sup>32</sup> Ibid., 13, 44.

하는 지고의 선을 따르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덕을 닦아야 함을 강조했다. 덕이 없이는 참다운 우정이나 다른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동시에 덕은 참된 우정을 결속시켜 주고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정에 관한 키케로의 담론은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우정론의 종합체(synthesis)로서,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의 행복론이라 사료된다.

### 3. 어거스틴의 저작에서의 우정에 대한 용례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과 친구는 항상 중요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그의 주요 저작 곳곳에서 우정과 관련한 그의 입장과 감상을 피력했다. 마루(Henri Irénée Marrou)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우정론은 매우 인격주의적(personalistic)이다. 어거스틴은 둘 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우정뿐만 아니라 우주적, 보편적 우정(Universal Friendship)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sup>33</sup>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 저작인 《아카데미학과 논박》(Contra Academicos, 386년)에서 우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우정은 아주 정의롭고 경건한 것’(quite rightly and piously)이라는 키케로의 정의를 인용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정이란 인간사와 신적인 사물에 마음을 함께함이며, 그것이 호의를 낳는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역시 우정을 이름에 있어 친밀감,

<sup>33</sup> Henri Irénée Marrou, *The Resurrection and Saint Augustine's Theology of Human Values*, tr. by Mother M. Consoata (Villanova: Villanova University Press, 1966), 29. 보편적 우정의 개념은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의 격렬한 다량의 표현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정이 실효적(실제적)으로 다른 자들에 의해 빠뜨려진 것을 인식하는 내용들이다.



성실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견지한 우정에 관한 사상을 계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우정에 관한 사상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간의 측면에서만 다룬다고 비판했다. 우정의 성립과 지속이 인간적인 덕에만 의지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안에서 선 의지와 애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실천적 삶”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강조했다.<sup>34</sup>

어거스틴의 《복된 삶》(*De Beata Vita*, 386년)에 따르면, 우정은 ‘겸손함의 선함’이 없으면 어렵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이는 다른 이들의 한계를 보고 비웃지 않는다. 더불어서 사람이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왜곡된 질투의 감정 없이 친구의 선한 모습을 닮으려 애쓴다. 어거스틴이 절제의 덕을 일컬어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덕목이고 모든 덕목들의 어머니다”<sup>35</sup>라고 선언한 배경이다. 절제는 겸손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우정을 논함에 있어 절제의 덕과 긴밀한 연관성을 논한 것 역시 고전 철학자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절제의 덕을 하나님을 위한 절제로 논의를 확장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숙할 수 있고 잘못된 열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절제가 없으면 삶의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하나님을 위한 절제로 인해 자신의

삶이 중심을 잡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sup>36</sup> 훗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복된 삶》의 그 논점을 다시 상기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했다.<sup>37</sup>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당신의 크신 자비에만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명하여 절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절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알게 된 것도 지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제로 인하여 분산된 우리 자신들이 거두어 모아져서 본래의 하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sup>38</sup>

어거스틴은 《독백》(*Soliloquies*, 386년)에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동시에 지혜를 얻을 친구를 찾는다.

이성 : 하지만 물겠는데, 왜 당신은 친구들이 살아 있는 것과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나요?

어거스틴 :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영혼과 하나님 앞을 함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이 발견하면 그것을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39</sup>

어거스틴은 《질서론》(*De Ordine*, 386년)에서, 모든 마음을 기울여 덕스

<sup>34</sup> Augustine, *Against the Academics*, 3. 6. 13, Johannes Quasten, Walter J. Burghardt, Thomas C. Lawler,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12 (New York: Newman Press, 1978). 이하 *Ancient Christian Writers*는 ACW로 함.

<sup>35</sup> Augustine, *De Beata Vita*, II. 8, Ruth A. Brown tr., *A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leveland: John T. Zubal, Inc., 1984).

<sup>36</sup> *De Beata Vita*, IV, 31.

<sup>37</sup> *Conf.*, X, 29, 40.

<sup>38</sup> *Conf.*, 10. 29. 40.

러운 사람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한다.<sup>40</sup>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과 관련하여 《질서론》을 주목하는 것은 그의 우정론의 기본 출발점인 사랑의 질서의 가치에 대해 집중적 거론을 하기 때문이다.<sup>41</sup> 로버츠(David E. Roberts)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다룬 《질서론》은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9년 동안 찾았던 악의 근원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sup>42</sup> 《질서론》에 의하면, 악의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우주론적인 생각은 악을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것도 아닌, 일시적인 것 곧 시작이 있는 현상으로서 인간 존재 안에서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와 약자, 승리

자와 패배자가 있고, 동시에 그 속에 자연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악의 문제도 전체적인 조화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해결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다.<sup>43</sup>

‘프라이스’(Richard Price)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사랑과 질서는 선이고 무질서는 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악이다.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행복은 선이고, 질서이다. 무질서가 행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행복을 소유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 덕은 사랑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곧 행복 자체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자 행복 자체이며, 최고선이다.<sup>44</sup>

어거스틴은 《마니교도의 습속》(*De Moribus Manichaeans*, 388년)에서, 373년경 그가 마니교의 청종자로 머물 당시 호라티우스(Horatius)라는 친구와 특별한 우정 관계에 있었음을 예로 든다.<sup>45</sup> 그런데 391-392년에 집필한 《신앙의 유익함》(*De utilitate credendi*, 391-392년)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그 호라티우스와 가까운 친구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호라티우스를 찾기보다 도리어 《신앙의 유익함》이라 불리는 그의 글을 쓰기 위해 주님의 교회로 회심하도록 힘을 썼다.<sup>46</sup> 그러면서도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흥미는 계속된다.

<sup>39</sup> Augustine, *Soliloquies*, 1. 12. 20, NPNF., Vol., VII.

<sup>40</sup> 《하나님의 도성》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는 사랑의 질서’이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XV. 22,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886).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라고 한다.

<sup>41</sup> 기베트(R. Douglas Geivett)에 의하면, 《질서론》에서 하나님의 섭리론에 입각한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논의는, 도덕적 악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주의 무질서로써 악을 고찰하는 데 집중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도덕적 악의 문제는 자유의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R. Douglas Geivett, *Evil and the Evidence for Go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11-12.

<sup>42</sup>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마니교에 끌렸던 것은 마니교가 악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onf.*, III. 7. 12). 마니교를 통해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해답은 이원론이었다. 마니교에서의 이 세계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의 전장(戰場)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마니교의 세계 속에서, 어거스틴은 악의 원리 작용에 불멸성을 부여함으로써, 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았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마니교와 절연한 후, 그가 마니교에 빠졌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마니교의 악의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극복해야 했다. 마니교에서 벗어난 어거스틴이 마니교로 인해 악의 문제에 대해 가져야 했던 딜레마는 바로 악이 실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거나 악을 원하시게 된다는 문제였다. David E. Roberts, “초기 저술들”,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130.

<sup>43</sup> Augustine, *De Ordine*, II. 4. 12, Albert C. Outler, e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어거스틴의 《질서론》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질서의 문제로 이해되고, 인간이 질서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이성이라는 두 지침에 의해서이다. Ord., II. 9. 26.

<sup>44</sup> Richard Price, *Augustine: Great Christian Thinkers* (London: Liguori Publications 1996), 77.

<sup>45</sup> Augustine, *On the Morals of the Manichaeans*, XIX, 1, NPNF., Vol., IV.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의 친구 호라티우스는 그 이전의 문화적 배경(the former's cultural background), 그의 독립적 영혼(his independent spirit), 그리고 영민한 마음(keen mind)을 소유한 자였다.

우정에는 이성으로도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신비로운 무엇이 있다. 만일 우정에 형언 못할 이 요소가 없다면 아마도 우정 자체가 없는지도 모른다.<sup>47</sup>

어거스틴은 《가톨릭교회의 습속》(*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388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미덕의 형태로 강조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부패되지 않은 절제(*temperance*)의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용기(*fortitude*)의 사랑, 섬김으로 인간에게 종속하는 다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정의(*justice*)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데 삼가야 할 것과 도모해야 할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신중(*prudence*)의 사랑.<sup>48</sup>

어거스틴은 《마니교도를 논박하는 창세기들》(*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388-390년)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sup>49</sup>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우정’ (*Friendship with God*)이란 말을 썼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도덕적 노력의 부산물로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생각했다.<sup>50</sup> 그러나 훗날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우정은 은총으로 여겨져야 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의 우정(친구 됨)을 수여(授與)하신다고 설교했다.<sup>51</sup> 어거스틴은 우정을,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일시적인 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관지었다.

<sup>46</sup> Augustine, *On the Profit of Believing*, 1-2, *NPNF*, Vol., III.

<sup>47</sup> *On the Profit of Believing*, 10.

<sup>48</sup> Augustine,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XV. 25, *NPNF*, Vol. IV.

<sup>49</sup>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우정과 하나님의 은총을 연관시켜 이해하는 어거스틴의 답론은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꽃이 핀다. 《하나님의 도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지혜를 공유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원초적 정의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우주가 가장 크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는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심은 믿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증인은 아직 없다. 거기서 선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말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지자는 현장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으며(잠 8:27),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또 이 지혜는 거룩한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와 대변자로 만들며, 자기가 한 일을 소리 없이 알려준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며(마 18:10)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거룩한 영혼들에게 말한다. 이런 영혼들 중의 하나였던 선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며 또 글로 쓴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복하기에 합당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는 또한 우리들이 가지게 될 믿음을 오래전에 말했다.<sup>52</sup>

<sup>50</sup> Augustine, *Saint Augustine on Genesis: 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1. 2. 4, Roland J. Teske, tr.,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84 (Washington, D. C.: Catholic University Press, 2001).

<sup>51</sup> Augustine, *Sermons*, 335. 2, Edmund Hill O.P. tr., *Sermons: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Philadelphia: New City Press, 1994).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 397년)에서 하나님에 중심에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질서를 잡아주는 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덕이 전제된 사람은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어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sup>53</sup> 웨덜(Paul J. Wadell)의 분석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하신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 더불어서 참된 우정을 나누며, 그 우정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계가 없다. 이런 점에서 내가 다른 이를 찾아서 만남을 이루는 것 또한 나의 계산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이다.<sup>54</sup>

《고백록》은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보고(寶庫)이다. 모네이글(John F. Monagle)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에 품었던 우정의 일화를 소개함에 있어, 세상(세상적인 것들, 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퇴화적인 관점(a pejorative sense)에서 적대적 우정(inimica amicitia)의 형태를 띤다.<sup>55</sup> 어린 시절에 저지른 배 도둑질은 너무 친근하지 않은 우정 때문이었다는 《고백록》의 진술이 그 직접적인 예이다.

아! 우정답지 못한 우정이여! 너는 영혼을 이상하게 유혹한 자, 탐욕과 장난의 충동으로 해로운 짓을 갈망하는 자, 자신의 사욕을 차리거나 남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됨을 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

나 누가 “자, 가자! 그러자!”고 말하면 우리들은 파렴치 못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sup>56</sup>

《고백록》은 그리스도인의 우정에 관해 ‘형제애를 가진 자애’(fraternal charity)라는 특별한 범주에서도 이야기한다.<sup>57</sup>

나는 그때쯤 고향에 돌아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친한 벗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와 같아 한창 피어나는 청춘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함께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으며 함께 놀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나와 친한 벗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내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우정이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롬 5:5).

그렇지만 우리의 우정은 달콤한 것으로, 함께 학문을 열심히 추구함에 따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그를 참 신앙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여 허구의 이야기나 해로운 미신으로 빠져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형편을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나와 함께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나의 혼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수

<sup>52</sup> *The City of God*, XI. 4.

<sup>53</sup> 어거스틴, 《기독교 교육론》, 1. 22. 20-21, 김종흡 역, 세계 기독교 교전 제 33권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sup>54</sup> Paul. J. Wadell, *Friendship and the Moral Life* (Nor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97.

<sup>55</sup> John F. Monagle, “Friendship in St. Augustine’s Biography: Classical Notion of Friendship”, *Augustinian Studies*, Vol., 2(1971), 83. 어거스틴은 우정을 뜻하는 ‘amicitia’를 그리스어 ‘philia’와 동일시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정의 개념은 광의적 관점에서 ‘이해’(comprehension)와 ‘탈구(脫臼) 교정’의 뜻이다. 그것은 가족 단위 안에서 가장 근접한 상호 인격적 관계성처럼 물질적(material), 육체적(physical),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방편을 포함한다.

<sup>56</sup> *Conf.*, II. 9. 17.

<sup>57</sup> *Conf.*, IV. 7.

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의 발꿈치를 쫓으시고, 동시에 당신은 자비의 샘으로서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와의-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우정이 싹튼 지 일년도 못 되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sup>58</sup>

《고백록》에 따르면, 고향의 그 친구는 ‘내가 알았던 그 생명의 모든 땀보다 내게 대한 땀이 더 큰 것임’을 알게 한 일 년 뒤에 죽었다. 이 일로 인해 어거스틴은 매우 우울해졌고 수심에 잠겨 그의 고향집이 마치 감옥처럼 여겨졌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그는 ‘부서지고 피 흘리는 혼’(soul all broken and bleeding)과 함께 그의 고향을 떠났다.<sup>59</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은 우정을 퇴화적이거나 또는 고양된 감각 안에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정의 개념을 ‘우정과 애정의 일치’(the union of friendship and affection)의 차원으로 상호 변환시켰다.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려고(마 19: 19) 하는 자를 선의(善意)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마음씨를 성경에서는 보통 카리타스(caritas)라고 부르지만 아모르(amor)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선택될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가르친다(딤후 1:8).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diligis: diligere의 2인칭 단수, 현재)고 물으셨고, 사도는 “주여 내가 사랑하는(amor: 동사 amaredml 1인칭 단수, 현재)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

했다(요 21:15-17).

내가 이 점을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diligere’의 명사형인 ‘dilectio’와 ‘caritas’는 ‘amor’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 문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다만 그들이 그런 구별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지를 나는 철학자들의 결정에 맡긴다. 하여간 선한 일에 관해서나 하나님을 향할 때에 ‘amor’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그들의 저서에서 충분히 증언한다. 나는 우리가 다른 모든 서적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믿는 우리의 성경이 ‘dilectio’와 ‘caritas’를 ‘amor’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sup>60</sup>

384년에 밀라노에 온 어거스틴은 그 지역의 모범 수사학 교수였던 베레쿤두스(Verecundus)와의 우정을 증진시켰다.<sup>61</sup> 그 우정은 씨가 뿌려졌고 결합되어 상호 간에 유용하고 즐거운 관계성으로 익어 갔다. 어거스틴과 베레쿤두스의 우정은 그가 세례를 받기 위해 카시키아쿰(Cassiciacum)에서 인퇴(引退)를 갖던 시기<sup>62</sup>뿐만 아니라, 최후 와병 중에 베레쿤두스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이다. 비록 어거스틴이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베레쿤두스와의 우정을 보물처럼 움켜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회심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처럼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과 관련된 긴장이 회심 때까지 존재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베레쿤두스는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단단히 묶어 놓고 있었던 죄사슬 때문에 우리와의 우정

<sup>58</sup> Conf., IV. 4. 7.

<sup>59</sup> Conf., IV. 7. 12.

<sup>60</sup> Augustine, *The City of God*, XIV. 7.

<sup>61</sup> Conf., V. 3. 5-6.

관계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아내에게 묶여 있어서 우리가 걷기 시작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로 기독교인이 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친절히 우리에게 자기의 별장을 제공해 주어 그곳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그에게 이미 의인의 몫으로 상 주신 것을 보니 미래에 있을 의인의 부활 때 당신께서는 그에게 꼭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sup>63</sup>

회심한 어거스틴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공통적 사랑 안에(in the common love of God)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우정은 참되지 않고 덕스러운 것이 아님을 확신하였다.

진정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덕성도 없다. 신체에 대한 영혼의 지배와 악습에 대한 이성의 지배가 훌륭하듯이, 그 영혼과 이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신

<sup>62</sup>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인 베레쿤두스는 밀라노의 수사학 문법학자였다. 베레쿤두스가 어거스틴에게 카시키아쿰의 자기 별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줄 때 그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베레쿤두스는 397년 어거스틴이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병중에서 세례 받고 그 후 세상을 떠났다. *Conf.*, IX. 3. 5.; 어거스틴의 카시키아쿰으로의 인퇴는 386년 9월부터 387년 3월 초 사이에 있었다. 카시키아쿰에서 어거스틴과 함께 기거하며 토론하였던 자는 어거스틴과 모니카, 어거스틴의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 알리피우스, 두 제자 리켄티우스(Licentius)와 트리게티우스(Trygetius) 등이었다. 데이비드 로버츠(David E. Roberts)에 따르면, 카시키아쿰에서의 토론이 386년 11월 10-12일과 19-21일에 있었던 《아카데미학과 논박》, 11월 13-15일에 있었던 《복된 삶》, 11월 16-18일이나 19-21일에 있었던 《질서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David E. Roberts, *op. cit.*, 122.

<sup>63</sup> *Conf.*, V. 3. 5.

체와 죄악에 대한 올바른 권위가 없다.<sup>64</sup>

실로 어거스틴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참다운 우정의 저자이자 참고 점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에 멈추지 않고 우정에 관한 그의 담론을 우리의 중재자이자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관계성으로 견인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그리스어로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라 부르는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든지 모두 함께든지 전부 그분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각 개인에게와 조화로운 전체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친구들을 현명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sup>65</sup>

우정이란 사랑이라는 말에서 오는 것으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실함을 보장받는 것이다.<sup>66</sup>

《고백록》 저술 이후의 저작에서, 어거스틴은 우정보다는 ‘사랑’(charity)<sup>67</sup>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는 경향을 띤다. 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렬히 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매력(끌림)이나 유사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아니카 팔토니아 프로바’(Anica Faltonia Proba)라는 미망인

<sup>64</sup> *The City of God*, XIX, 25.

<sup>65</sup> *The City of God*, X, 3.

<sup>66</sup> Augustine, *A Treatise Against Two Letters of the Pelagians*, 1. 1, *NPNF.*, Vol., V.

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우정은 너무나 좁은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정은 사랑하는 모든 자와 친절한 호의를 품은 자에게 마땅한 것으로서, 비록 그 마음이 이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자 해도 사랑은 다른 이에게 좀 더 신중하게 한다. 이 점을 우리의 원수들에게로 확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sup>68</sup>

어거스틴이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이르러 우정보다 사랑을 자주 언급한 다고 하여 우정에 대한 그의 관심과 강조가 결코 감소한 것이 아니었다. 어거스틴은 《입문자 교리 교육》(*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400년)에서 좋은 친구와의 관계성 구축을 강력히 피력한다.

나는 호감이 가는 친구보다도 현명한 친구를 두고 싶다.<sup>69</sup>

또한 어거스틴은 《입문자 교리 교육》에서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길 것을 역설했다.

우정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편에서 사랑이 없음을 보고도 시비를 앓는 벗, 우리 사랑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에 못 미치는 벗을 배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sup>70</sup>

<sup>67</sup> 비검과 물리겐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카리타스가 그 핵심이다. 카리타스는 용어의 관례상 자비(char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흔히 '사랑'으로 부른다. Thomas J. Bigham, Albert T. Mollegen,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437.

<sup>68</sup> Augustine, *Letters of St. Augustine*, 130. 6. 13, *NPNF*, Vol., I.

<sup>69</sup> Augustine, *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9, Raymond Canning, tr. (Philadelphia: New City Press, 2006).

<sup>70</sup> *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4.

어거스틴은 《창세기 축자 해석》(*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401-415년)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티프로 삼아 잘못된 우정의 치명성에 대해 경계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아담은 하와를 어린아이를 얻기 위한 목적의 '돕는 배필'로 여겼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우정과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 주를 배반하게 하는 '호전적 애정' (a martial affection)이 존재하였다. 그들이 이 호전적 애정을 따랐을 때, 재앙의 결과가 찾아왔다. 아담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인 아내를 부정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했다. 교만과 함께한 그 불순종은 인간 종족의 습관적 표지가 되었다.<sup>71</sup> 리스트(John M. Rist)에 따르면, 이 경우에서와 같이 '호의적 우정' (amicalis benevolentia)의 타락은 인류에게 거의 치명적인 것이다.<sup>72</sup>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 400-416년)<sup>73</sup>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정 안에서 한마음이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선언한다.<sup>74</sup> 나아가 어거스틴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sup>75</sup>은 우정의 상태를 복원시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친구처럼 그렇게 관계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

<sup>71</sup> Augustine,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11. 42. 59. *ACW*, 42.

<sup>72</sup> John M. Rist, *Augustine: Ancient thought baptiz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78.

<sup>73</sup> 이종성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삼위일체론은 초대 교회가 약 400년에 걸쳐 논쟁을 거듭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을 종합하여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며 정통적 삼위일체 신앙을 체계화한 불후의 명작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I. 2. 4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상가시켜 요구해 온 다음의 사실을 밝힐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실체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이다.” 이종성, 《삼위일체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64.

<sup>74</sup> Augustine, *On The Trinity*, VI. 1. 17, *NPNF*, Vol., III.

자 존재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 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sup>76</sup>

린하르트(Joseph T. Lienhard)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은 하나의 사건(accident)이기에 하나님에 의해 입각되지(predicated)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잉태’를 아버지와 아들의 우정으로 볼 수 있음을 허용한다.<sup>77</sup>

나아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우정에 관한 그의 관심과 진정성을 쉬지 않고 표명한다.

내일이면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다면, 결코 친구로 사랑할

<sup>75</sup> 《하나님의 도성》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수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선포한다. 즉 아버지가 말씀을 낳았다. 그것은 지혜다.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아버지와 동등하다. 지고선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이다. 그 자체가 다른 두 부분과 함께 실체를 같이하고 영원토록 함께 존재한다. 이 전체가 한 삼위일체론을 형성한다. 그 이유는 위격(Person)의 개별성 때문이다.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할할 수 없는 한 신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전능이 분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한다. 그 세 분을 함께 말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라든가 세 분의 전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 이 세 분의 한 분 한 분의 분할할 수 없는 통일이 너무나도 위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의 것인지 아들의 것인지, 그 두 분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다. 즉 그는 두 분의 성성(聖性)이다. 그가 단지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신적 실체다. 삼위일체 안에서 제3의 위격(位格)이다.” *The City of God*, XI. 24.

<sup>76</sup> *On The Trinity*, V. 16. 17.

<sup>77</sup> *The City of God*, VII. 6. 11. Joseph T. Lienhard, “Friendship”,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Allen D. Fitzgerald,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9), 373에서 재인용.

수 없는 것이며 그에게 성실할 수도 없다.<sup>78</sup>

정말 용기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현명함을 갖춘 치밀한 사람도, 자신이 선명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이 아예 당초부터 우정을 가장했거나 아니면 본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가짜 친구가 되어 버린 경우이거나 간에,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sup>79</sup>

현세에는 자칫하면 원수를 친구로 알고 친구를 원수로 믿게 된다. 그토록 괴로움이 많은 인간 사회에서, 진실하고 선량한 친구들의 신실한 믿음과 상호간의 사랑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근심은 커지지만 한다. 혹시나 무슨 해코지가 친구에게 닥치거나 않을까, 세상에 가득한 사악에 놀라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이런 괴로움을 욕하고 싶거든, 그럴 엄두가 나거든 우정 어린 대화로 욕해 보라. 우애의 감정을 건드리고 파괴해 보라. 우정에서 아무런 감흥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법으로 금해 보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금하는 일이 도대체 가능치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괴로움, 일종의 상처, 마음의 생채기가 나오려면 보드랍고도 위안을 주는 섬세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sup>80</sup>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말미에서 그가 그토록 선망하며 추구해 온 우정에 대해 내린 정의는 너무나 고전적이고 매력적이다.

<sup>78</sup> *The City of God*, XII. 21. 2.

<sup>79</sup> *Ibid.*, XIX. 5.

<sup>80</sup> *Ibid.*, XIX. 8.



우정은 ‘꾸밈없는 믿음과 선하고 진실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 이외에 허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 (What consoles us in his human society, so full errors and hardship, except unfeigned faith and the mutual love of good and true friends)이다.<sup>81</sup>

#### 4.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에 함유된 암시

이상에서 어거스틴의 주요 저작에서의 우정에 관한 용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에 함유된 신학적 암시는 무엇일까?

##### 1) 《고백록》을 전후한 우정 담론의 성격 변화

런하르트에 따르면,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우정의 질적 차원에서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카시키아쿰의 인퇴(引退) 시에서 《고백록》 집필 때(397-400년)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고백록》 저술에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이다. 어느 경우이든 우정은 항상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연민(공감)의 끈’ (the bond that unites two persons in mutual sympathy)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그 ‘끈으로서의 우정’의 근원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는 《고백록》 집필을 전후하여 질적 차이를 띤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적 동조(지지, 공감)를 우정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은혜를 통한 성령의 선물인 우정의 근원이라고 어거스틴은 이해했다.<sup>82</sup>

런하르트가 지적한 바, 《고백록》을 중심으로 한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

의 중심적 성격의 변화는 그의 신학적 성숙과 발전의 궤와 같이한다. 곧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철학의 범주에서 논해진 우정론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승하는 연장선상에 선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후 집필한 《고백록》을 정점으로 하여 우정에 대한 그의 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조망된다. 이는 어거스틴이 철학적 수사학자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자 신학자로서의 발전과 성숙을 이룬, 인격적 회심을 한 신앙인임을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 2) 신학적 우정론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그리스 로마 고전 철학자들이 강조한 덕 사상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에 머물지 않고 그의 우정론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까지 견인한다.

질송(E. H. Gilso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간의 사랑에는 결코 위안이 없다. 도리어 그 사랑에 위안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서로에 대한 애정에 상호성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의 기초가 됨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에 있다.<sup>83</sup>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을 그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sup>81</sup> *The City of God*, XIX. 8.

<sup>82</sup> Joseph T. Lienhard, *op. cit.*, 372.

<sup>83</sup> Etienne. H. Gils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New York: Random House, 1960), 135.

다……. 이 문제를 분명히 볼 때, 아무튼 자신을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람은 그 생활 자체가 영원 불변하는 생명을 향하여 가는 여행이 되며, 그 심정이 전적으로 이 일에 집중될 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sup>84</sup>

이상에서 이미 강력하게 괴력된 바, 사랑에 관한 어거스틴의 기본 생각은 인간이 진정으로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밝힌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확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sup>85</sup>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만을 참다운 목적으로서 사랑(*frui*)해야 하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uti*)해야 한다.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을 목적으로 사랑하면서도 더 고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종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은 욕망(*cupiditas*)이지 진정한 사랑(*caritas*)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amor Dei*)이 진정한 사랑(*caritas*)이고 이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진정한 형제애로서의 우정이다.

밥콕(William S. Babcock)의 분석에 따르면, ‘*caritas*’와 ‘*cupiditas*’는

‘무엇인가(something)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caritas*’와 ‘*cupiditas*’는 그 ‘사랑의 대상(objects)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는 ‘영원한 것’ 대(對) ‘한시적인 것’, ‘상실되지 않는 것’ 대 ‘상실되는 것’의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기에 ‘*caritas*’는 ‘완성된 사랑’ (love fulfilled)이고, ‘*cupiditas*’는 ‘미완성의 사랑’ (love unfilled)이다.<sup>86</sup>

결국 어거스틴에게 있어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는 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덕이 전제된 사람은 올바르게 질서가 잡혀 있어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이 중심 되어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 참된 우정을 나누며 그 우정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정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우정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유발되고 견지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어거스틴의 담론은 ‘카리타스 사랑론’으로 집약되는 신학적 우정론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우정의 신적 기원을 해명한 신학자라 평할 수 있다.

##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로 이어지는 제 철학자들의 덕을 중심으로 한 우정론을 계승하는 선상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 철학자들의 우정에

<sup>84</sup> 《기독교 교육론》, 1. 22. 20-21.

<sup>85</sup> *Conf.*, IV. 12. 18.

<sup>86</sup> William S. Babcock, “Augustine on Sin and Moral Agency,” William S. Babcock, ed. *The Ethics of St. Augustine*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1), 44-49.

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한 재해석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정에 관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사상을 그의 영혼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총의 조명 아래 여과시켜 이를 신학적 우정론으로 개진시키고 승화시켰다. 어거스틴은 덕으로서의 우정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서의 우정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우정에 대한 고전 철학의 형이상학적 재검토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하는 카리타스의 사랑 안으로 깊게 뿌리 내린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참다운 우정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형성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지혜를 공유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원초적 정의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는 견지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철저히 신학적이다. 더불어서 ‘우정은 꾸밈없는 믿음과 선하고 진실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 이외에 허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견해는 너무나 황량한 세상 살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우정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함을 강력히 일깨운다는 점에서 참으로 인간학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어거스틴이 일생에 걸쳐 추구하고 펼쳐 온 우정의 세계는 인간적 당위성으로서 행해야 할 덕으로 출발하여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따라서 참다운 우정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귀한 보물이라 사료된다.

##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 김상만 \_ 군선교연구위원, 정책전문위원

■ 김택조 \_ 연합사 군종장교

■ 이정우 \_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처장



### 1. 서론

#### 1) 연구동기

지난 2012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필자들은 호주를 방문하였다. 주요 일정은 호주 국방부 각 군 군종실 방문과 호주연합교회 제13회 총회 참석이었다. 군종목사 차원에서의 호주 국방부 방문은 처음이었다. 캔버라에 있는 국방부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육군군종감실과 해군 군종감실을 방문하였고, 점심에는 각 군 군종감들과 호주 군종학교장과 군종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모임을 겸한 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공군 군종감실 방문에 이어서 캔버라와 멜버른 사이 앨버리에 위치한

호주 군종학교의 학교장과 실무자가 직접 호주 국방부로 와서 군종학교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연합교회는 매 3년마다 전국총회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호주 아델라이드 시에서 “풍성한 삶(요 10:10)”이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번 제 13차 호주연합총회에는 필자들이 속한 교단 총회장을 비롯하여 총회 관계자들과 호주교회 초기선교지역이었던 부산경남 대표 20명, 부산 일신병원 대표 8명, 대한 감리회 대표 태동하 목사를 포함하여 2명,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정성 총회장을 비롯하여 2명 등 총 35명이 참석하였다.<sup>1</sup>

짧은 방문 기간이었지만 호주 방문과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함께 동역하는 군종목사를 비롯해서 군선교 관계자들을 위해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 필자들이 체득한 호주군의 군종활동과 호주연합교회의 군선교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발전적 상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본 소고를 통해 발전적 전망을 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이미 동기에서 밝혔듯이 호주 군과 민간의 군선교 영역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혈맹관계인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캐나다 위주의 군종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호주 군선교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군종활동의 폭을 넓히고, 해외 군선교 정책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호주는 군과 교회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2</sup> 1889년 호주 장로교에서 첫 선교사인 데이비스<sup>3</sup>가 복음을 전하다

<sup>1</su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이야기〉(서울:한국장로회출판사 2012), 346

순교한 이후 120여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 파송된 호주 선교 동역자인 양명득 목사를 포함해서 총 127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는 선교 동역자로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순직 호주 선교사만 8명이다.<sup>4</sup> 또한 군 차원에서 볼 때 호주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다. 한국전쟁 당시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하고 1만 7천 명의 병력을 보냈을 뿐 아니라 그 중 340명이 전쟁에서 희생하였다. 그들이 쏟은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과 교류가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동기 및 목적, 그리고 제한점을 밝힌다. 2장에서는 호주 군종현황과 군종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호주연합교회와 군선교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4장에서는 결론으로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종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미래적 전망으로 군내 전망, 민간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3인의 공동 작업이다. 따라서 3가지 개인적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방문기간 전후로 시간을 내어 함께 토론하였다.

<sup>2</sup> 양명득, “한국 선교와 호주연합교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149

<sup>3</sup> 존 브라운, 〈은혜의 증인들〉, (서울:한국장로회출판사 2009). 이 책은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 목사가 데이비스 첫 선교사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파송한 126명의 선교사역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sup>4</su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Ibid.*, 270. 순직 호주 선교사 8명을 위한 묘소와 기념비가 한호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2009년 마산공원묘원에 마련되었다.

둘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이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직접대면 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그리고 다양한 책자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기본 동기가 호주 군종정책과 호주 군선교 현황 소개 그리고 미래적 전망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 및 문제제기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 2. 호주 군종현황

### 1) 호주 군종 현황

#### (1) 병과연혁

호주군은 1911년 호주연방정부에 군종장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12년 성공회 3명, 기독교 2명을 국방장관 승인하에 군종장교로 지명, 결정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군종활동이 군내에서 활성화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종장교 숫자가 증가하였다. 육해공군 군종장교 숫자는 120명인데 육군 70여 명, 해군 20여 명, 공군 30명이다.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 군에 비해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육해공군 군종감이 모두 다 준장이다. 육군은 성공회 신부가, 해군은 천주교 신부가 그리고 공군은 기독교 목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육군 군종감인 조프리 클라우드 웹 성공회 신부는 2010년에 취임했다. 고대군동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해군 군종감은 터트 러셀 홀 신부였다. 멜본 태생인 군종신부는 1987년 신부 서품을 받고 1991년에 입대하였다. 2011년 군종감으로 취임하였다. 공군 군종감은 머레이 디 얼 호주연합교회 목사이다. 2008년에 공군 군종감이 되었다. 군

별 종교별 배분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자신이 속한 군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단을 대표하기도 한다. 군을 대표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종단을 대표해서는 종단의 이해관계를 군에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

#### (2) 군종 업무

호주 군종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종교 업무(Religious Ministry), 종교적 돌봄(Pastoral Care), 인성훈련(Character Training), 행정 및 참모업무(Administration and Staff Duty)이다.<sup>5</sup> 국방부 훈령 제2장 군종 업무 제4조 기본목표 “군종 업무는 종교 활동, 교육 활동, 신도 활동, 대민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sup>6</sup> 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 업무는 종교행사 및 종교의식을 실시하고, 지휘관에 대한 종교 활동 및 군종지원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 종교적 돌봄은 병사들의 근무지, 가정, 훈련장, 의무시설을 방문한다. 소위 가족지원팀이라고 해서 군 의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친교관련 활동가 등과 함께 장병가족 돌봄을 제공한다. 인성훈련은 장병들의 개인 인성개발 및 개인관계 기술 개발, 도덕적 판단 및 행동제어 관련 교육을 한다. 또한 훈련을 통해 부대 내 장병들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및 인성발전을 도모한다. 행정 및 참모업무는 지휘관의 부하로서 참모로서 행정업무를 한다. 대위 임관을 해서 소령, 중령, 대령을 거쳐 최종 각 군 1명씩 장군이 있다.

<sup>5</sup> <http://www.defencejobs.gov.au/army/jobs/chaplain/>

<sup>6</sup> 육군 군종목사단, “국방부 훈령”, 〈군종활동 관련 규정집〉 2009. 7. 31.

## 2) 호주 군종학교 현황

### (1) 비전 및 임무

우리 군과 같이 군종 교육의 중심센터의 역할로서 야전에서 군종장교가 해야 할 각종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감당한다. 또한 지휘관, 군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여 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노련하고 군인자세가 확립된 군종장교를 양성하는 일을 한다. 육해공이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것과 각 군이 요구하는 군종장교 훈련을 병행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 (2) 군종학교의 역사

군종장교 훈련은 1920년부터 육군이 먼저 시작하였다. 2001년 육군이 주도하는 교육을 육해공군 통합된 형태로 바꾸었고, 2006년에는 국방 군종장교 대학(Defence Chaplains College, DFCC)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국방 군종장교 대학이 육군에서 분리되어 호주 국방대와 함께 합동 호주 국방 학술원(Joint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ASFA)으로 편입 되었다.

### (3) 임관 요건

호주 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종교자문위원회<sup>7</sup> 허락, 시민권자, 2년 목회 경험이 필요하다. 지원가능 종단으로는 영국성공회, 천주교, 호주연합교회, 장로교회, 침례교연합교회, 루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 유대교이다. 연령은 56세까지 지원 가능하고 정년은 60세

이다. 3년 단위로 심사하여 연임 및 진급을 하게 된다. 호주 군종장교의 초임 임관관 평균연령은 40세에서 45세이다. 최근 해군의 경우 군종장교 지원자가 없어서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종교적 기본 조건을 갖추고 영어가 가능한 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

### (4) 교육과정<sup>9</sup>

가. 초급과정1(ADF Chaplain Initial Course - MOD 1)

- 교육기간 : 12일
  - 현역(Full-time Chaplains) : 첫 임관 후 12개월 이내 수료해야 함.
  - 예비역(Part-time Chaplains) : 첫 임명 후 24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 교육목표 : 초임 육해공군 군종장교들이 첫 보직과 파병에서 지원 군종장교 임무 수행을 위해 준비시킴.
- 교육내용
  - 종교적 돌봄, 윤리적, 도덕적 조언
  - 종교행사 실시 및 활성화
  - 교단 군종장교로서의 임무 수행
  - 파병장병에 대한 군종업무 제공
  - 효과적인 행정 및 관리 실시

나. 초급과정2(ADF Chaplain Initial Course - MOD2)

- 교육기간 : 6일

<sup>7</sup> 우리에게 없는 조직. 종교자문위원회 RACS(Religious Advisory Committee to the Service)

<sup>8</sup> <http://www.defencejobs.gov.au/army/jobs/chaplain/> 군인 직업란에 소개된 내용이다. 참고 바람.

<sup>9</sup> 연합사 군종장교 소령 김택조 목사가 호주 군종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교육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조식으로 소개한다.

- 교육목표 : 군종장교들의 자살위기 개입 적용과 주요 사고 정신건강 지원 영역에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종장교로 준비 시킴.
- 교육내용 :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 초임 현역(Full-time Chaplains) : 초급과정1 후 바로 수료해야 함.
  - 초임 예비역(Part-time Chaplains) : 초급과정1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료해야 함.

#### 다. 중급과정(ADF Chaplain Intermediate Course)

- 교육기간 : 12일
- 교육목표 : 육해공군의 군종장교들이 상위 계급의 임무와 조정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훈련함.
- 교육내용
  - 팀 지도, 관리, 발전 방안 습득
  - 사령부 내 조정 및 협조하는 군종장교의 임무 수행
  - 파병부대 내 조정 및 협조하는 군종장교의 임무 수행

#### 라. 선임과정(ADF Chaplain Senior Course)

- 교육기간 : 5일
- 교육목표 : 중령 군종장교의 대령진급 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교육내용
  - 호주군의 선임군종장교 역할 수행
  - 부대 내 군종장교를 지도, 관리 및 발전시키는 리더
  - 전략계획의 발전, 실시와 평가
  - 재정 관리 계획 발전 및 예산관리

#### 마. 장병 인성개발 과정(Character Leadership Course)

- 교육기간 : 5일
- 교육목표 : 신앙원칙의 공부를 통해 장병들의 인성 및 신앙함양을 증진하여 부대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준비하기 위한 과정임.
- 교육내용
  - 윤리적 결심 과정
  - 리더십
  - 파병장병 리더십

### 3. 호주 민간현황

#### 1) 호주연합교회

호주연합교회는 성공회와 천주교 다음으로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기독교 교단이다.<sup>10</sup> 19세기 초 영국에서 호주로 온 세 개의 교단인 호주회중교회, 호주감리교회, 그리고 호주장로교회가 1977년 6월 22일 연합한 교단이다. 현재는 2,500개 교회이지만 연합 당시 3,500개 교회로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다.<sup>11</sup> 호주장로교회가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해서 한국과 호주장로교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호주연합교회의 역사가 된 것이다.<sup>12</sup> 다시 말하면 한호선교 120주년의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호주연합교회가 계승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호주연합교회는 호주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호주연합교회 사회봉사부(Uniting Care)는 호주에서 가장 큰 복지운영 단체이고, 오지선교부(Frontier Service)는 노인복지, 건강과 사회복지, 그리고 시골 지역의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체이다.<sup>13</sup> 탄생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되

어 호주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호주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세 교단이 대화와 조정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1901년부터 계속된 조정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연합기초서(Basis of Union)은 호주연합교회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4</sup>

## 2) 종교자문위원회(RACS)<sup>15</sup>

천주교, 성공회, 호주연합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 유대교 등 6개 종교대표가 모인 위원회이다. 군에 종교자문을 하는 단체이다. 2년을 주기로 각 종단 대표가 회장을 수행한다. 현재는 호주연합교회 소속 목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RACS는 종단 대표들이 종단별로 지분을 정하여 군에 군종장교를 선발하여 보내는 데 합의할 뿐만 아니라 병과에 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장관과 면담하여 자문을 하기도 한다. 종단들이 함께 의제를 갖고 논의하고 결의되면 군대를 상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이다.

<sup>10</sup> 앤드류 더트니, “호주연합교회의 소개”, 〈호주연합교회와 교회 일치운동〉, 조성기 엮음,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96 저자는 호주 아델라이드파킨 웨슬리대학 학장으로 서 2012년 7월 15일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이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이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 비해 호주는 3년이다.

<sup>11</sup>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앞의 책, 126

<sup>12</sup> 위의 책, “호주장로교회와 한국교회”, 25 연합 당시 장로교 일부는 연합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sup>13</sup> 앤드류 더트니, 앞의 책, 97

<sup>14</sup> 위의 책, 16. 최초 1977년 연합 당시 만들어졌는데 1992년 현대적 언어로 재출판되었다.

<sup>15</sup> 호주연합교회 대표이며 동시에 RACS 현 위원장인 홀(Hall) 목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4. 미래적 전망

### 1) 군내 전망

현재 세계 군종병과를 볼 때 미국뿐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등 군종병과가 군에 있는 나라는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역시 150여 명의 군종장교 수를 갖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다부진 조직과 장군 병과장이 총지휘를 하고 있다.<sup>16</sup> 호주 군종병과는 120여 명의 크기임에도 육해공군 각각 군종병과장이 장군으로 전문성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상호 공존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다. 군에서 필요한 것은 한 목소리 즉 연합정신이다. 개체마다 독립적으로 독특성을 확보하며 힘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로 에큐메니칼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때는 연합정신으로 풀어야 한다. 군이 군종병과에 기대하는 것은 선교나 포교가 아니다. 유사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생관 확립이다.<sup>17</sup> 다시 말해 신앙을 통한 무형 전투력 향상이다. 이 신앙 전력화를 위한 군종장교들의 활동은 군선교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군종병과에 장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선교나 포교적 관점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 장병 사생관 확립과 신앙 전력이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 풀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캐나다나 호주 병과를 보면서 종교 상호 연합정신의 힘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군의 환경 속에서도 병과의 위상과 군내에서 신앙전력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군종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 군종학교의 시스템, 각 과정들, 교육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

<sup>16</sup> 이 부분은 대령 이정우 군종학처장의 캐나다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sup>17</sup> 한국군종목사단, 앞의 책 “군종장교의 임무와 사명”.



다.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조직면에서 교육내용면에서 특이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호주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해외 파병을 많이 하고 있어서 평화 유지 교육 내용은 특이할 만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이 호주와 교류하면서 풀어가야 할 미래적 과제라고 본다.

## 2) 민간 전망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제까지 군선교연합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호주의 경우 교단을 넘어서 종단끼리 연합하는 종교자문위원회가 있다.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단체라고 생각된다. 캐나다도 유사한 군종시스템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종교자문위원회(Interfaith Committee) 지원과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하는 기독교 전통과 유대교, 이슬람 등 민간 종교인들을 대표로 구성하여 상호 연합을 한다. 역할은 호주 종교자문위원회와 비슷하게 군장종교 지분을 정하고 군종병과 내 모든 종교이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한목소리로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군종정책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과 기대 그리고 군종병과 장 추천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국방부에 보낸다. 또한 캐나다 종교자문위원회는 신학박사나 전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여 군에서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군종정책에 반영한다. 즉 전문가들은 종교자문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군장장교들이 보직한 모든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각 부대 지휘관을 통해 군종병과가 보완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각 부대를 순회하여 군종장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병과의 필요들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것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다.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지만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연합하여 한목

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종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 5. 결론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는 혈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120년이 넘는 선교 협력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호관계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해와 협력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호주군의 군종병과의 위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차원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종병과 발전을 위해 어떤 협력들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필자들이 터득한 내용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이어져 갔으면 한다.

호주 방문 마지막 날인 7월 19일 오후에는 군선교연합회 호주지회 창설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가졌다. 초대 회장으로 호주 시드니동산교회 황기덕 목사가 선임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호주지회를 통해 보다 더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더 바라기는 사랑하는 후배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할 뿐 아니라 보다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헌신했으면 한다.